

일본 수출로 기술력 인정받아

치밀한 기술교육으로 질 좋은 제품 생산

일본수출과 국산포장기계 산업의 개척 등 포장산업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부천기계의 한상룡 사장은 평생 기계와 함께 살아온 장인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1984년 부천기계를 설립하기전 만도기계에서 기계의 기본원리와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현재 임원이 된 이윤행 전무 등과 함께 포장기계업에 투신하였으며 기술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전한 기업이다.

부천기계의 심벌은 해와 달의 조합이다. 해와 달은 각각 희망과 의지를 표상하고 이는 완벽한 장인정신을 나타낸다. 또한 해와 달의 조화, 즉 음양의 대표적인 상징의 조화는 부천기계인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국가경제와 공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해와 달은 도전과 패기의 모습이기도 하며 가능성과 그것을 향해 지칠 줄 모르고 전진하는 부천기계인의 도전정신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해와 달을 상징하는 심벌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인지 (주)부천기계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최고의 기능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능공에게는 그만큼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믿고있다. 이에 따라 (주)부천기계의 매출액을 사원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인 사원주주제를 도입하여 부천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해외연수와 국내연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업계 제일인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150여 직원중 상당수가 이미 일본등지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연수를 마쳤으며, 국내 기술연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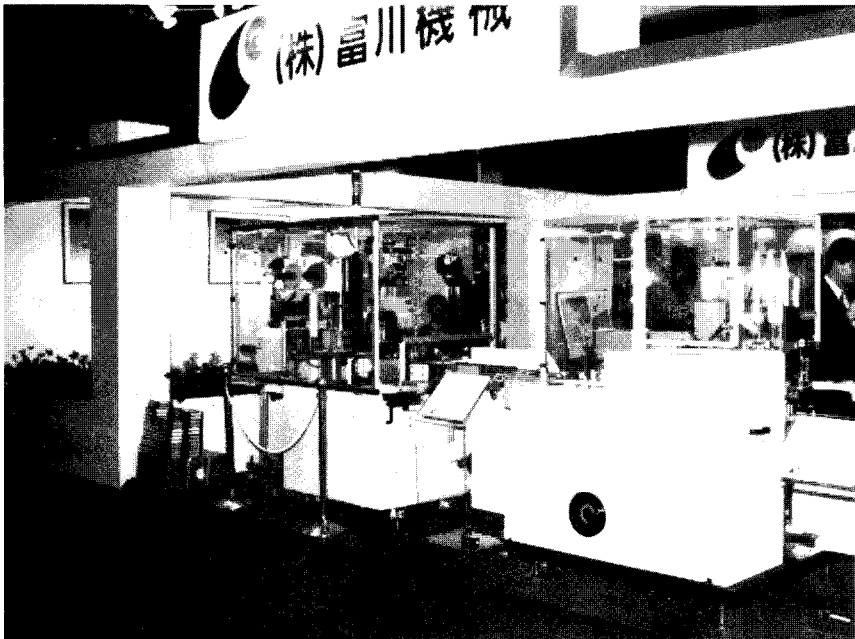
철저한 장인정신이 국제경쟁력 키워

한상룡사장은 철저한 장인정신을 갖고 포장기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

“한국인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측우기 등을 만들며 손재주와 과학적 정신을 발휘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실력은 한국인의 가슴속에 간직된 장인정신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초일류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는 어느때보다 장인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한사장. 장인정신을 갖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며, 가장 올바른 경영이라는 경영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 부천기계는 포장기계

부천기계는 일본 미추열사와 협력, 일본의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기술제휴하고 한국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95서울박에 참가한
부천기계부스

의 기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선이
젊은 기업에 속한다. 일본의 뮤추
얼 상사를 통해 (주)부천기계의 제
품을 계속 수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뮤추얼을 합작으로 설립하여
일본의 포장기계 제작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포장기계의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시키고
있다.

(주)뮤추얼한국의 한상모상무이사
는 “일본의 포장기계가 현재 수입다
변화 품목에 묶여 있어 국내에 전혀
수입이 되지 않고 있지만 WTO체제
의 출범과 국제환경의 변화로 수입
이 용인된다면 일본제품의 공세에
견딜 수 있는 기업이 몇개 되지 않
는다”는 지적과 함께 시급히 일본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부천기계는 이러한 상황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포장기계 전문메이커 뮤추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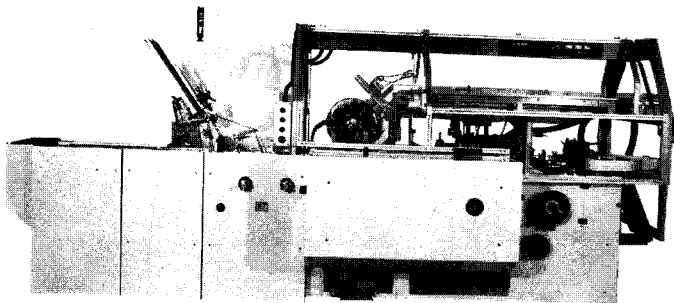
사와 협력하여 국내외 판매법인인
뮤추얼한국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선진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기술제휴를 하고 한국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윤행전문은 “(주)부천기계는 타
사의 제품과 무엇이냐 다르다는 이미
지를 유저에게 심기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이는 기술적과 서비스의 차이
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
하기도 했다. 결국 기술적인 측면 즉
설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강조되
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천기계를 생
산하는 생산라인의 우수성이 더욱 강
조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매
년 3~4명의 기능공들을 일본등지에
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속적으로 배
려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중소기업
업진흥공단 등 기술지도와 진단지도
를 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기능공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포장기계제작 기
술을 끊임없이 연마한 기능공들이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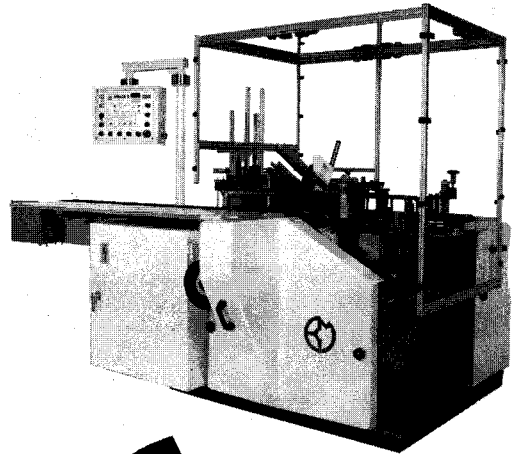
든 제품은 우수할 수 밖에 없다고 지
적하기도 했다.

부천기계는 독자적인 신제품 개발
과 함께 더욱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
기 위해 일본의 뮤추얼과
(주)TECHNO자동기계작소의 라이
센스 및 기술지도에 의해 제품을 제
작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잘팔
리고 있는 제품을 일본 현지업체의
협력하에 설계를 입수하여 한국화
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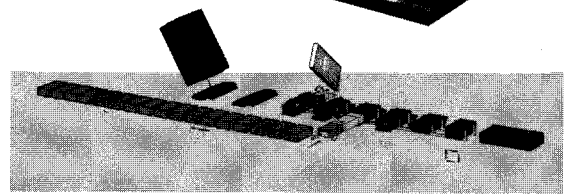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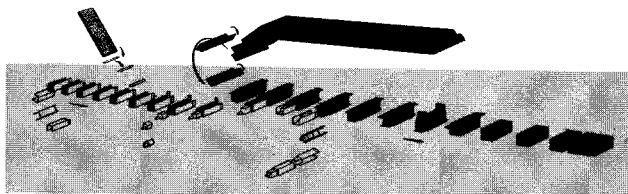
OVERWRAPPING기계인 CW-
1의 경우 일본의 (주)TECHNO의
도움으로 제작한 것으로 셀로판과
P.P.,P.E. 등 다양한 필름류를 분당
UPTO 40 STROKES할 수 있으며
0.75KW의 메인모터를 장착하고 있
다. 이 기계는 제품생산의 중간과정
중 BOX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기능
을 갖추고 있어 원가절감효과가 탁
월하다는 평을 얻기도 했으며, 카톤
제품을 소정의 수량으로 지정한 후
오버랩핑을 할 수 있는 기계다. 따



▲ Winner-II



▲ Winner-H V II



라서 제품의 중간케이스를 없앴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비용을 대폭 덜어 주었을 뿐 아니라 쓰레기 양을 대폭 줄여 제조업체에서 상당한 호평을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울팩에 출품한 제품들은 소형화 하여 좁은 장소에서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급화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INTERMITTENT 카트너(WINNER-2)와 연속 TYPE으로서 분당 최대 300 CARTON 정도로 대량생산에 적합한 고성능 CONTINUOUS 카트너(WINNER-H7)를 제작하기도 했다.

질 좋은 부품, 기술보호가 아쉬워

부천기계의 이윤행전무는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가지가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공의 실력과 장인정신 그리고 질 좋은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소재산업이 성

숙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중 소재산업의 육성은 포장기계 산업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국가적인 산업이라고 지적한다. 전자, 철강 등 다양한 부품과 소재가 포장기계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며 이 모든 것과 제작과정이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한다. 그러나 국내 포장기계업체가 아무리 좋은 설계와 제작과정을 갖고 있다 할 지라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포장기계에 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소재산업의 뒷받침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이전무는 지적하는 한편 외국의 질 좋은 부품의 수입이 일부 금지되어 있어 이같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 포장기계산업은 자체기술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외국의 우수제품을 한국화하고 제품화하는 데는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질 좋은

부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저렴한 가격대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일본-대만 등에는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활발히 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개발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소 중 하나는 기술권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그로 인한 가격의 덩핑”이라고 (주)부천기계측은 지적했다. 즉 (주)부천기계측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데는 1년 이상의 기간과 기술개발비가 투하된다. 어렵게 생산된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어 1~2년 지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새롭게 선보인 제품을 영세업체에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시중에 판매할 뿐 아니라 가격의 덩핑판매로 그동안 생산액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손정수 기자

수출만이 세계적인 업체만들어

세계적인 포장기계 개발에 주력 할 터

근래 전체포장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 경영자로서 포장기계산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WTO체제로의 개편등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으며 세계 제일의 상품만이 소비자들로 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산업 육성시책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와 수입다변화를 정부가 유도하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포장기계산업도 이러한 세계환경의 변화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우수한 일본제품이 무역불균형등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국내 포장기계산업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왔지만 아직 미성숙했다고 판단됩니다. 한동안 계속 이런 보호장치는 온존하리라 기대하지만 당장 개방이 된다면 견딜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내 포장기계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를 개발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포장기계산업이 영세하여 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단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내포장기계산업과 외국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국내포장기계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하는데는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며 이는 150여명의 규모를 자랑하는 (주)부천기계에도 적용됩니다. 즉 각 업체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영세할 뿐 아니라 시장이 너무 협소하여 재투자 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 포장기계업체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일본, 독일 등 포장기계선진국들이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다국적 기업형식의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적입니다. 외국기업도 시장과 기술개발상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10여명 안팎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 (주)부천기계 한상룡 사장

따라서 이들의 기술개발도 한정된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외국기술을 모방하고 복사하는 단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모델 및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선보여 외국시장에 진출해야 국내 포장기계업이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에 국산기계를 수출하면서 느끼신 것이 있다면?

아직 일본과 포장기계제작 수준이 많은 격차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국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지 기술이 뛰어나서는 아닙니다. 또한 국내에서 기계를 만들때도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다량 수입해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계소재들이 일본의 것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와 기술을 갖고 있어도 국내 전반의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소재산업과 주변산업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포장기계를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자등 주변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질 좋은 제품을 선보일 기반이 뒤일 것으로 보입니다.